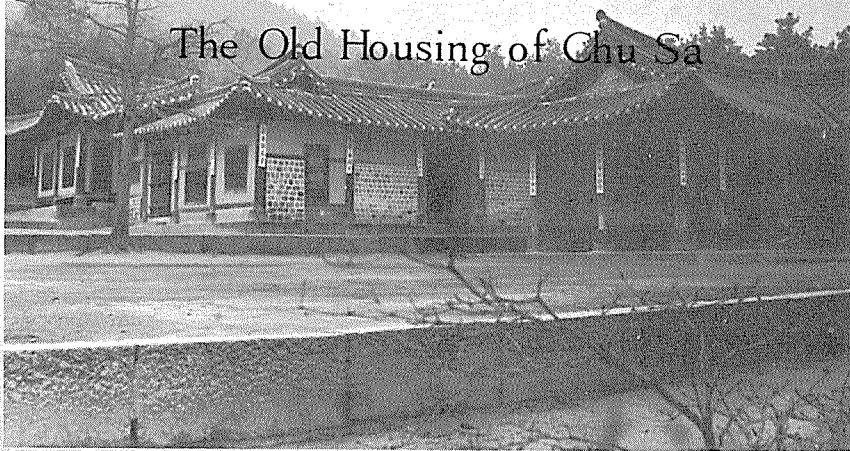


秋史故宅

The Old Housing of Chu Sa



李應默

건축사사무소 새한

1. 序

秋史 金正喜先生 故宅은 忠淸南道 禮山郡 新岩面 龍宮里 龍山아래에 있다. 溫陽에서 禮山쪽으로 가는중에 新禮院에서 唐津가는길로 접어들다 다시 왼편 과 수원길로 2km가량 들어선 곳이다.

故宅의 터전은 낮은동산 기슭에 자리 잡았고 주변엔 넓은 平原이 전개된다.

秋史先生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어린시절을 보내었다. 또 오랜 관직생활과 귀양살이 중간중간에 머물러 있던 故宅이나 실제로 이집은 그의 증조부인 月城尉 金漢蠶(김한신)에 의해 1750年 頃에 건립되었다. 그후 그 後孫들이 世居해왔으며 中央에서 큰 벼슬을 하며 地方에서도 경제기반을 누렸던 士大夫의 第宅이 되었다. 그런가답에 이곳 忠淸道 西海岸 지방에서는 보기드문 口字形 平面的 안채와 사랑채등을 갖인 조선시대 후기의 品格높은 上流住宅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日政期이후 이故宅이 개인에 이양되어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집의 여러곳이 퇴락되고 부분적으로 變造되기도 하고

또 불규칙하게 增設되어져 본래 모습이 많이 퇴색해 있었다. 數年前에 先賢遺蹟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었고 또 建築史的으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當局에 의해 퇴락된곳을 보수하고 당초의 建物原狀을 찾아 復舊하는 작업이 행해졌다.

그러나 創建當時의 家宅모습을 再現하는 전체의 완전복구는 아니었고 뚜렷하게 형태를 남긴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礎礎 없어진 家廟와 中門행랑의 일부를 복원하는데 끝쳤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故宅全貌라고 살필수는 없다. 대문간이 달린 바깥행랑과 庫間채, 울타리안팎의 정원과 연못등이 살려지지 않았다. 현재 故宅의 안채와 사랑채에는 옛주인이 생활하던 가구와 집기등이 제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秋史의 筆蹟으로된 縣板과 書藝品이 전시되어 있다.

안채와 사랑채를 중심으로 건물의 구조와 공간개념에 대한 간단한 考察을 하고저 한다.

復元工事時 설계팀 一員으로 참여하였던 기억과 재답사로서 살펴본다. 作業當時엔 申榮勳文化財專門委員의 考證指導에 큰 힘을 얻었고 그의 重修記가 보

고된 바 있다. (文化財管理局刊「文化財」11號 1977)

2. 配 置

故宅은 뒷동산의 東쪽 기슭이 평퍼짐하게 흘러내린 낮은 자락에 자리잡아 東西로 길게 안채와 사랑채가 배열되어 있다. 대지의 윗쪽에 안채가 있고 한단 낮은 東便에 사랑채가 있다. 여기에서 한단 더 낮은 곳에 中門과 窠간채가 있었고 그 아래편에 대문간을 포함한 바깥행랑이 있었다고 傳한다. 지금 대문이 있던 터전은 새롭게 丹粧된 故宅의 前面廣場으로 조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窠간채와 중문이 있던 자리에서 조금 안쪽으로 窠을 문과 그 좌우 한칸씩의 行랑광만을 복원하여 지금의 대문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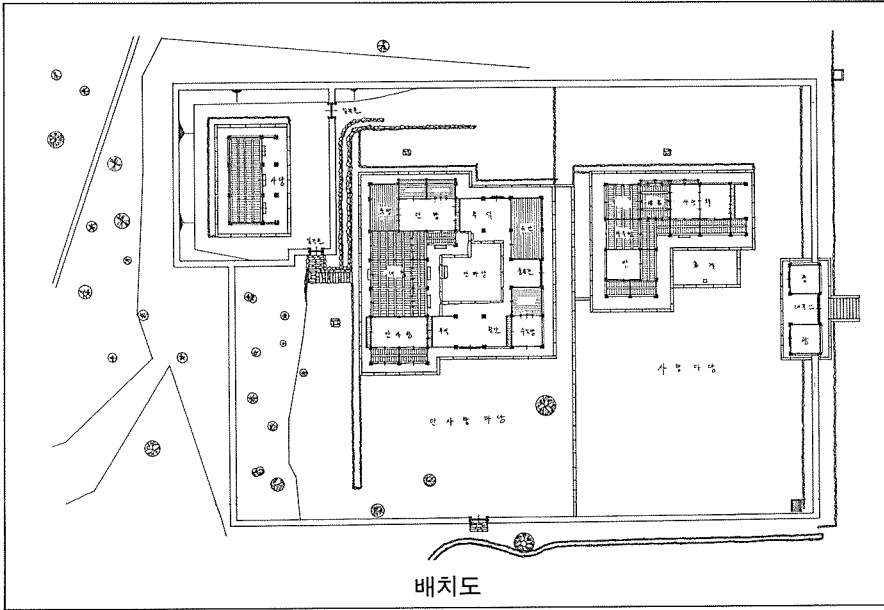
사랑채와 안채의 남쪽에는 넓은 마당이 마련되어 있다. 地形의 高低를 따름한 石列이 몇곳에 놓여 地面에 層段을 이루었으나 上部는 전체가 완전히 티여진 開放空間이다.

안채 후면둔덕 한쪽에 祠堂이 별도로 돌담을 두르고 있다. 사당은 正面3間, 側面間半으로 半間前退를 개방한 맛배지붕의 堅實한 家廟이다. 안채의 서측과 북측배면에서 오르는 통로에 각기 一角門을 내어 廟担(묘담)內에 들어갈수 있다.

현재 故宅주위에 둘러진 담장내부의 배치상을 空間概念에서 살펴보면 사랑채 전면의 넓은 마당은 사랑마당이 된다.

이 마당의 東端, 한段 낮은 지대에 草葺의 三間窠간채와 中門이 있어 外곽을 막아주는 아늑한 사랑마당이었을 것이다. 「」字로 꺾인 사랑채前面 고풍부에 낮은 石段의 花階가 형성되었다. 또 「石年」이라 刻字된 秋史先生 筆致의 해시계 받침 石台가 세워져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사이엔 層段지반을따름한 한줄의 外별石列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혹시 여기에 담장을 두어 안팎마당을 구획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遺址는 없었다. 이 담장이 있다면 사랑마당과 안채의 마당과는 確연



히 구분되어져 조선시대 士大夫 大家 집의 일반적인 배치형상을 갖춘 공간구성이었을듯 싶다. 또는 중간에 낮은 높이의 草花壇이 설치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이 터진 상태로 본다면 안채 남면의 넓은 마당도 사랑마당에 흡인되고 안채의 건너방 부분은 작은사랑 또는 안사랑과 같은 기능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둘러쳐져 있는 외곽 돌담도 당초부터 있던 자리와 형태는 아니다.

口字形 안채건물로 둘러진 내부의 안마당은 매우 협소한 편이다. 그리고 안채의 북측후면에 장독대가 있었고, 우물은 남쪽담장 밖에 있다.

故宅의 南쪽入口에 秋史先生 墓所가 淨楚하게 정돈되어 있다.

3. 안 체

① 平 面

안채의 평면은 口字形으로 구성되었다. 대청등의 주몸체는 西쪽에 앉아 東向하며 그 兩端部에서 ㄷ자로 깎여 부엌, 헛간등이 平面의 南·北辺을 이루고 다시 庫間과 中門間, 온돌방등이 東辺을 막아서 있다.

南北의 方向으로 5間, 東西方向으로 6間이되어 東西로 약간 길쭉한 口型이다. 자연히 내부엔 안마당이 형성되었다.

몸체중앙부에 자리잡은 대청은 正面 3間的 柱間이 8尺(영조尺)으로 각각 2.48m이고 보간(梁間)은 2間이되어 6間대청의 넓은 마루이다. 안마당쪽의 半間을 退로 하여 高柱를 세우고 여기에 四分閤門을 달아 구획하였다. 여름과 필요할때는 완전개방할수 있도록 들어 열개로 고정되고 처마 밑에 들쇠가 달려있다. 대청 좌우로는 한칸통으로 안방과 사랑방이 배치되었다.

안방은 다시 동쪽으로 깎여 2間통이 되고 北便으로 半間퇴를 내달아 골방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장마루를 깔고 外壁(北側이됨)의 각각마다 세 살문 달아 後庭에 출입한다. 문밖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었다. 안방위(西便) 板房도 안방뒷퇴가 연장되어 半間通의 庫房으로 활용된다.

안방의 南쪽 즉 안마당쪽에도 半間的 退마루 내어 대청퇴에 接于하였다.

대청체의 南端이되는 안사랑 前面에도 半間退를 내달아 마루방이 되었다. 南面인 사랑 마당쪽에 바라지창 2칸과 西壁上部엔 光窓을, 그리고 東面한 半間에 出入門달아 이리로 출입하게 하였다. 이 퇴板床은 안사랑 마당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屋外內空間을 유통시켜주는 벽없는 퇴마루일것으로도 간주되었으나 기둥몸에 파진 枋材흔과 壁植흔적을 감안 壁設되었다. 넓은 사랑마당을 眺望하며 觀賞할수 있도록 바라지창이 설치되었다.

안채에서 대청좌우의 방을 포함하는 2間통의 주몸체가 지형상 한단높은 바닥을 이루었고 여기에서 東接하는 單間通인 양쪽부엌 등의 바닥이 낮아져 層段을 이룬다.

안방부엌은 2間으로 되어 土床에 부뚜막걸고 그 上部엔 다락이 설치되었다. 두칸부엌중 東1間에 後庭으로 나가는 板門이 있을뿐 안마당쪽은 壁과 出入門 없이 완전히 터져있어 이채롭다.

부엌열 東端間은 마루같은 板房이 南쪽으로 깎여 2間쪽의 內庫間을 이루었다.

이 板庫의 남쪽간에 板門을 달아 안마당에서 出入하게 하였고 이어진 南쪽間엔 안채에 들어가는 中門間이 있다.

대청의 왼편 안사랑(보통은 건너방)에서 깎여 東進하는 첫간의 부엌이고 그 옆 두間이 土床으로된 헛간이다. 여기엔 우물에 나가는 便門과 家財도구등을 넣어 두는 수장용 헛간이면서 東端의 單間은 돌에 굼불때는 아궁이가 설치되었다. 안마당쪽은 벽없이 티어놓았고 부엌상부엔 다락을 형성했다. 작은 온돌방에서 北便으로 깎여 마루방 1칸, 그리고 中門間에 이어진다. 여기 南東隅의 온돌과 마



안채전경



안채후면

루방 사이에는 불발기창으로된 사분합이 구획하며 마루방에 내어진 넒출문을 통해 안마당에 출입한다. 이방西壁 중방위에 벽장을 달아내고 그아래에 헛간에서 불뎌수 있는 아궁이를 두었다.

안방과 안사랑방에도 아랫목쪽에는 머리벽장과 다락에 오르는 벽장문이 있어 부뚜막위의 중간턱을 딛고 다락에 오른다.

안사랑의 웃목인 西壁上部에도 높직한 고미다락을 처마밑에 달아내어 벽장으로 사용한다. 이는 중방과 남도리 사이에 구성되고 그하부에 光窓을 달아 방에 채광을 도모하였다.

中門을 들어서면 곧바로 안채대청이直視된다. 이것을 막기위하여 근래까지 中門間에 맞벽이 있었다. 中枋의 上·下를 土壁과 板壁으로 가로막고 옆칸으로 깎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본래의 것이 아닌 까닭에 제거되었다. 원래는 안쪽처마밑에 꽃담으로 쌓아진 내외벽(서울班家등의 華文壁)을 설치하였던

것이나 再現되지 않았다. 안마당이 비좁아 더욱 협소하게 느껴질 것이었다.

이것이 안채의 대체적인 평면상황이다.

안채의 建物규모는 160⁴⁹m² (48⁶³坪) 이고 안마당 넓이는 22⁰⁶m² (6⁶⁷坪)이다. 間數로는 退間까지 합쳐 24間이다. 그중 안방과 사랑방등 구들놓은 칸이 5間이고 대청 6칸, 퇴마루및 板房이 5間 부엌3칸, 곳간 2間 문간과 헛간등 土床이 3칸이다.

온돌방의 면적이 20% 남짓하다. 廳의 넓이는 이에 배가 넘는 면적이다. 多濕한 지역이 아니면서도 마루를 넓게두었다.

안방은 여주인의 일상거처실이며 침실이 된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에 근거한 내외법에 따라 안방에는 직계존속을 제외한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왔다. 또 바깥주인이 돌아가시면 다음세대의 여주인(며느리등)에게 비워주고 다른방으로 물러섰다고 한다. 아랫목은 주부의 자리로서 보통 다락문을 등지고 웃목을 향해 앉게된다. 지금 여기에 두툼한 보료를 깔

고 가운데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을수 있는 案席이 기대어 놓여있다. 그 좌우엔 四方枕과 長枕이 놓여있다. 보료앞에는 화문석을 깔아놓고 방석이 배열되어 안주인을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던 모습이다. 화로에 인두 꽂아 방안에 놓아둠이 상례인데 여기엔 보이지 않는다.

안마당을 향한 쌍창아래에 문갑을 놓고 조금 웃목에 반다지와 장롱을 놓았다. 웃목에는 병풍을 쳐놓고 양옆의 문안쪽에는 방장쳐서 외풍을 막은듯하다.

板房인 웃방에도 장과 놓이 있다. 대청은 안방및 웃방과 건너방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방으로 출입하는 前室기능을 가지며 여름에는 시원한 거처가 된다. 또한 집안의 큰일이 있을때엔 대청이 중심되어 행사를 치루고 喪事時엔 几筵(几筵)을 모셔두기도 하고 祭祀가 행해지기도 한다.

원래 마루는 民家の 房 中에서 聖所에 해당하여 家宅神인 城主님을 모셔두고 성주동우에 매년마다 햇곡을 담아 경건하게 家運을 빌었다 한다. 그래서 취침을 하거나 손님접대및 居室로의 活用을 하는 空間이 아니었고 後日에 와서 마루의 機能이 變質되었다고 한다. 일부地域에서는 아직도 마루의 本來기능이 保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中·下流 民家에서는 食事·作業·收藏空間으로 쓰인다. 여름에는 居室의 기능을 가지며, 겨울에는 穀物및 其他 家財를 쌓아두는 空間으로 利用된다. 건너방은 며느리의 방 혹은 장성한 子女가 사용하는 방으로 웃목에 장과 놓을 놓고 앞에는 樓마루를 두어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것이나 이집에서는 작은 사랑의 역할을 한것으로 보인다. 방안의 가구와 집기는 놓여있지않다.

이택에는 안방과 건너방 동쪽에 각기 부엌이 연결되어 있다. 안방부엌은 취사를 위한것이고 사랑방쪽은 굼불때는것이 주목적이다. 방쪽에 부뚜막 설치하고 넓은 작업공간을 가지고 있다. 각기 後庭에 나가는 板門이 있으나 안마당쪽에 벽 없이 티어놓았다. 취사調理나 작업기능상 합리할 것으로 보이며 내부공간 구성으로도 허전한 감을준다. 그리고 반빛간을 따르듯 大家집의 부엌에서나 흔히 볼수



안채의 대청부분 정면



안방의 내부 (옛생활모습의 집기배치인)



사랑방부엌과 헛간 부분



안사랑방의 머리벽장문과 다락출입문



안방부엌과 상부다락



안방쪽을 본 맹장지로된 분합문

있는 형태이다.

어쩌면 □자로 형성된 건물내부 앞마당이 매우 협소한 까닭에 티어놓은 것으로도 보이며 경북일성 양동마을의 「향단」의 부엌과도 비슷하다. 근래까지 유리끼운 분합문이 설치되었던것을 제거시켰다.

② 안채의 構造

장대석을 쌓은 基壇이 地形에 따라 層級을 이룬것은 전술한바와 같다. 안마당에서 둘러보면 안방과 대청 안사랑까지의 몸체쪽에 두벌장대이고 양편부엌에서 東邊을 감싸는 ㄱ형 죽담은 외벌장대이다. 그래서 높은기단에 오르기 위해 디딤돌(步石)을 두었다.

柱礎石은 四角의 높은 梯形(윗부분이 좁고 아래가 넓은)礎石을 놓고 그 위에 角柱를 세웠다.

마루의 높이는 기단바닥으로 부터 58.5cm 가량 떨어져 각간마다 커다란 장대섬돌을 놓았다. 마루는 대청과 안방·사랑방의 前退부와 다락이 우물마루이고 골마루와 옷방, 곳간 아랫방열 마루가 장마루널로 깔았다. 온돌방의 구들위에는 角壯紙 장판에 콩기름먹이고 벽과 天障은 요즈음 벽지로 도배하였다.

바닥의 낙차는 지붕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主몸체의 처마높이는 양쪽날개부위

(南·北邊)보다 1段높으며 안방부엌에서 庫間쪽으로는 다시 한단 낮추어 지붕형성하였다. 架構上으로도 2間通인 몸체는 五樑架構이고 나머지 부분의 三樑 架構구성보다 지붕높이가 높아져 자연히 주요부분임을 강조하게 된다.

몸체의 架構는 一高柱五樑架이다. 前退部에서 平柱와 高柱間에 퇴보를 걸되 평주위에 사괴맞춤된 두툼한 운두가 점차 밑바닥을 후려내어 高柱에 긴결됨으로써 휘어오른듯이 보인다.

高柱와 후면평주 사이에 장중한 들보를 걸고 그위에 동지주세워 중보를 받고 다시 그위에 板臺工을 올려 마루도리를 받았다. 방이되는 柱列에서는 間柱에 맞보를 接合하고 휘어오른 중보걸어 五樑架 구성하였다. 道里는 남도리 이다.

대청등의 천정은 연등으로 서까래가 모두 들어나며 그사이 공간을 회벽으로 발라 마감하였다.

처마는 부연없는 홑처마이나 八作지붕을 이룬 네귀의 추녀들은 두개의 부재를 덧댄 알추녀이다. 선자잇기는 선자서까래끝이 추녀뒷몸에 모여짜이는 통상방법과 달리 추녀측면에 엇비슷이 갖다댄 엇선자 수법이지만 견실한 편이다.

壁體는 재래식 외역기 心壁에 表面을 砂壁으로 치장했으며 中枋이하의 下半에 하방벽(防火壁)을 두른곳이 많다.

그러나 기둥까지 감싸지 않았고 기둥양면에 용지판 세워대 기둥몸을 들어내는 견실한 품격을 보인다.

구들과 부엌下枋밑등의 고막이를 돌로 막아 습기를 방지하게 하였다.

各房에는 세살창호달고를대청과 마루방, 內庫間등에는 바라지창(넌출문이라고 고도 하는 板門)을 달았다. 또한 부엌과 다락, 벽장, 헛간板房, 庫房등에는 적절한 벽체에 너살로 가득매워진 光窓을 분박아 고정하여 채광을 도모하였다. 특히 南面한 부엌과 헛간에는 中枋의 上下에 2개의 크고작은 광창을 수직배열하여 충분한 채광과 함께 外觀을 재미있게 꾸며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온돌방의 出入門은 세살여닫이 안쪽에 두겹다시대고 미서기문을 밀어넣게 하였다. 대청과의 사이에는 맹장지로 고정된 세짝문을 달아 개폐토록하되 필요할때는 문짝전체를 떠 매달아 들수있게 하였다. 대청뒷벽(西壁)은 머름위에 바라지창달았는데 御間에서만은 머름을 없애고 板門을 크게하여 안채뒷편의 사당으로 직접 나갈수 있게 하였다. 문지방 밖에 步石이 있다. 이를 딛고 나가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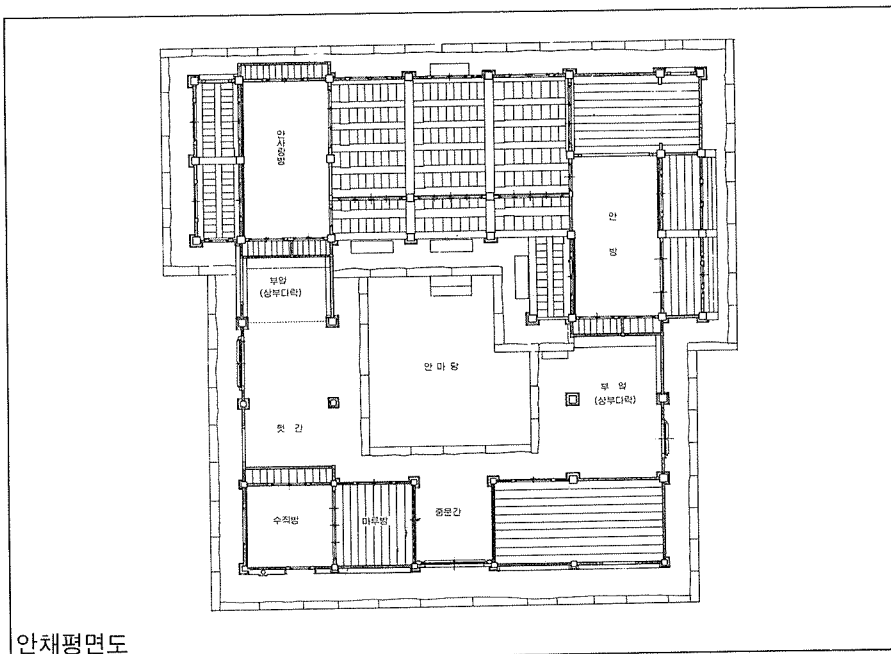
안채에서는 각방과 청의 창문이 머름을둔 높이에 있으나 외견상론 머름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砂壁으로 처리되었다. 부엌위 다락의 높이도 비교적 높아 종도리 밑으로 1.6m가량 확보되어 있다. 다락내부의 채광을 위한 광창이 안마당 쪽과 배면에 운치있게 배열되어 있다.

4. 사랑채

① 평면

사랑채는 ㄱ字形 平面의 고패집이다. 側面 2間에 正面은 東西로 길게뻗어 南面한 3間半에 여기서 꺾이어 東面한 3間半으로 되어있다.

南向한 집체의 東端으로부터는 半間幅의 함실칸(상부다락)에 이어 사랑방 2間과 대청 1칸이 連接하였다. 前面엔 半間 퇴마루가 연결되고 그 東端에 板門달아 막았다. 대청에 西接하여 “ㄱ”字로 꺾인 부분에 마루방 2칸과 온돌방 1칸, 그 끝에 半間退가 東쪽에 연결되고 南面한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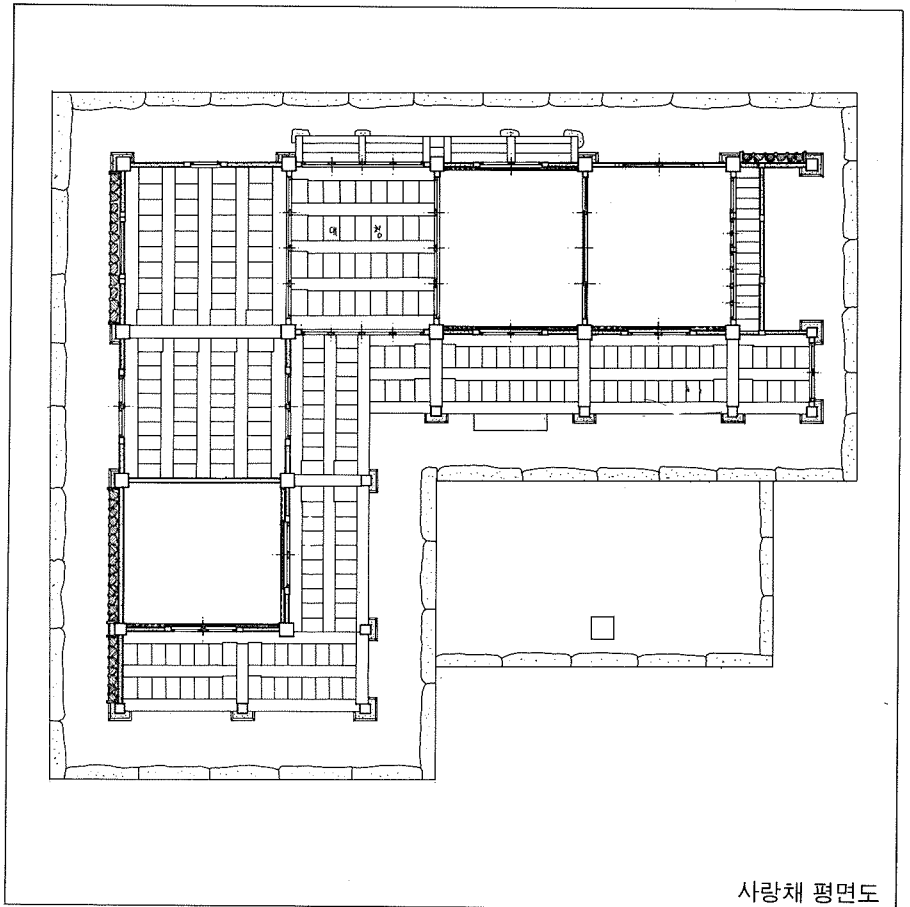
사랑채전경



사랑채 배면



박공 밑에 눈썹지붕달린 모습



사랑채 평면도

退에 접속된다.

사랑방은 아래·위 2칸방의 중간을 4 짝장지로 구획하였으되 개방해놓고 대청과의 사이에도 불발기달린 四分閣을 들어열개로 단았다. 아랫목 東壁에 머리 벽장과 다락문을 내고 다락의 남쪽과 동쪽벽에는 너살광창 고정시켜 채광했다.

대청은 單間만의 廳이지만 四面壁이 모두 全開될수 있는 四分閣門으로 둘러져 있다. 대청의 前面에는 퇴마루가 고패된다. 대청에 西接해 격인 마루방 2間도 南壁만이 砂壁으로 옆의 구들과 구획될뿐 3面壁의 각 간에는 높낮이가 서로 다른 대소의 창호가 개설되어 내면벽에 변화를 준다. 세살쌍창, 불발기사분합, 너살로 만살된광창, 외작세살창등 각종의 창과 지계문을 보인다. 옆에붙은 작은방도 퇴마루로 둘러쌓은 동·남면에 각각 창호가 개설되어 있다.

이방에 아궁이는 西壁下部에 있고 굴뚝도 그쪽에 있어 연기는 방고래를 휘어 돌아나가게 되어있다. 대청과 사랑방윗목

배면으로는 좁은 쪽마루 부설했다. 건물의 사면을 장대기단석 둘러지고 고패된 前面에 한단낮추어 花階가 있다. 면적은 23평으로 10.5間인 바닥에 구들은 3칸 뿐이고 나머지가 모두 마루이다.

사랑방은 주인의 일상거처실이다. 來客의 接待며 食事は 물론 따로 침방이 갖추어지지 않은곳에서는 침실의 역할도 한다. 이택에서는 사랑채에 작은방이 한칸 더있어 여기에서 취침을 하거나 시중드는 아이의 수직방 또는 객실로도 활용한듯 하다.

사랑방에는 아랫목에 보료를 깔아놓고 案席과 長枕, 四方枕이 놓여져 있으며 南窓아래 문갑을, 벽있는곳엔 높은 책장이 놓여있으며 오른쪽엔 書案과 筆架, 冊櫃(책레) 茶果檯등을 정돈이 덜된 채로 있다. 웃목에는 사방탁자를 쌍으로 좌우에 놓아 자기류를 엮어 장식하였다.보료주 위에 병풍을 둘러치고 창과 문에는 방장이나 무렵자 둘러뒀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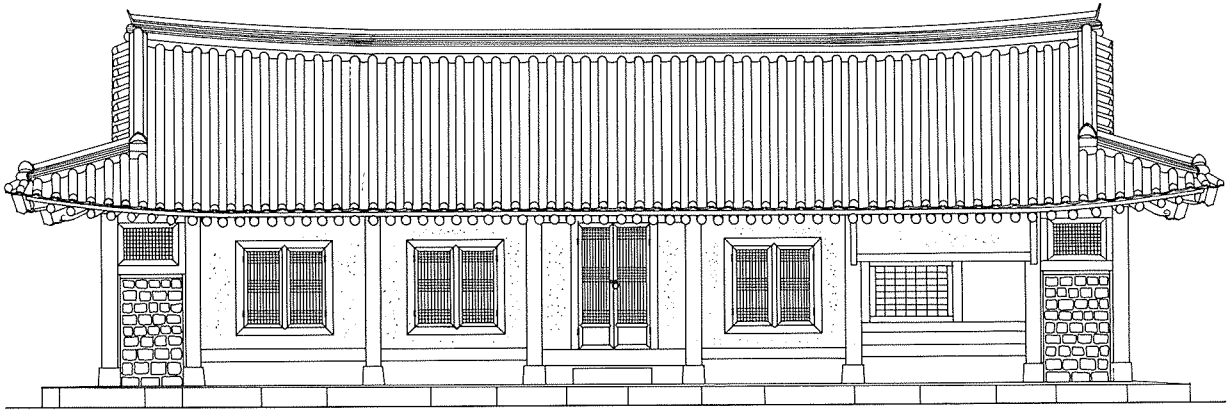
대청은 매우 좁으나 좌우의 불발기 창호를 모두 접어 들쇠에 매달아 엮고 또 前後의 분합을 전부열어 놓으면 西接한 마루방과 사랑방까지 모두 티어져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랑채 외측에 보이는 각 기둥에 마다 精麗한 필체의 주련(柱聯)이 걸려있고 오래된 砂壁面에는 취흥에 젖어 벽면에 직접 쓰여진 肉筆흔적이 남아있다.

② 사랑채 구조

외벌대 기단에 높은 사다리꼴(梯形)주 초석 배열한후 角柱를 세웠다. 礎石上面에서도 거리를 띠어 귀틀이 설치된 까닭에 전체 마루높이가 꺾충하게 높아졌다.

樓다락집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런까닭에 樓마루를 따로 설비하지 않은듯하다. 전체마루밀을 開放하고 온돌 설치한 방벽밀에만 고매기들로 막았다.

사랑방 웃목칸에만 디딤돌(步石)을 놓아 마루에 오를수 있다. 모두가 우물마루이다. 귀틀을 바깥기둥의 2/3선 까지만 물



안채 서측배면도



안채 남측면도

려 접합시키고 外緣의 기둥 몸은 드러내었다.

분합문을 제외한 창틀은 퇴마루 위에 높이 떨어져 나지막하게 開口되었다. 머름대위에 세워놓은듯 보이나 前面에서는 머름을 생략한듯, 중방이나 인방의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문얼굴의 주위가 砂壁으로 마감되었다. 옅은 미색 色調를 띤 壁體에 문얼굴과 창호만이 들어가 質朴하고 高雅한 기품을 자아낸다. 또 벽면 문쪽쪽에 알맞은 손잡이 받을 자리엔 받이목이 배열되어 있어 독특한 멋을 보인다.

문얼굴은 쌍사를 넣고 연귀맞춤하여 견실하게 제작되었고 두짝문의 가운데에 중간대를 세웠다. 세살창의 안목에 두겹 다지대고 미서기창 넣음은 안채와 같다.

사랑방 아랫목벽에는 앉은 키 어깨높

이 쯤에서 중방사이에 머리벽장을 3구 획하였고 그중 남쪽편의 것은 키 큰 문짝으로 하여 다락에 오르게 하였다.

架構는 平柱위에 퇴보결은 一高柱五梁架이다. 道理는 남도리에 네귀를 궁글리었고 퇴보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두툼한 운두하부를 점차 깎아내어 高柱에서 휘어오른듯이 결구되었다.

지붕은 東面한 채에만 八作틀고 南面한 東端은 맛배로 하였다. 처마는 훑쳐마이나 추너부분을 덧댄 알추너로 하였고 선자잇기는 안채와 같이 엇선자 꼬임이다.

東쪽 맛배지붕의 박공아래 매어단 눈섭지붕은 邊柱에서 까치다리 빼어내고 그위를 긴장혀 걸쳐대서 서까래를 받게 하였다. 박공과 눈섭지붕, 고미다락과 머리벽장이 이루는 공간구성이 묘한 분위

기를 연출하고 각 構成材와 光窓, 바라지창등과 함께 외관의 흥취를 돋구어 준다. 시원해 보이는 樓식 사랑채와 卍字로 폐쇄된 안채가 어울려 훌륭한 住家를 이루었다고 본다.

◎ 參考文獻

- 韓國住宅建築 朱南哲 著 一志社 刊
- 한국의 살림집 申榮勳 著 悅化堂 刊
- 韓國의 民家研究 張保雄 著 寶晉齋 刊
- 韓國民俗調查報告書(住家편)
文化財管理局 刊
- 秋史故宅重修記「文化財」11號 申榮勳
- 忠南地方 上流住宅研究
朴萬植外
忠大「百濟研究」호.